

등록번호	사회문화법제국 -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공개여부	공 개

기 안	법제관	국 장	차 장	처 장
협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 선진 자원순환 법제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2018. 10.



사회문화법제국

# 1

## 출장 개요

### 1. 출장목적

-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정책 추진 중
  -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대신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확대하고 경제에 환류하려는 취지
    - \* 1989년 영국의 환경경제학자 D.W Pearce와 R.K Turner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2006-2010) 및 파리기후협정(2015), 세계경제포럼(2017)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로 부상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과제가 포함('15.9) 되었으며, EU는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과 법률 개정안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패키지('15.12)를 발표, 승인('18.5)
- 순환경제 개념이 태동한 영국과 가장 먼저 「순환경제·폐기물법」을 제정한 독일을 방문하여 자원순환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2. 출장단 및 주요 일정

- 출장 국가 : 영국, 독일
- 출장단 : 총 2명

연번	성명	소속	직급
1	이유진	사회문화법제국	사무관
2	황현숙	사회문화법제국	주무관

□ 방문 기관

- RMW(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2018 컨퍼런스
- 런던 폐기물·재활용 위원회(The London Waste and Recycling Board)
- 프라이부르크 시청 환경부서

□ 출장 일정 : 2018. 9. 12.(수) ~ 9. 19.(수) / 6박 8일

날짜	시간	주요 일정
1일차 9.12.(수)	13:30 17:25	• 한국(인천) 출발(KE 907편) • 영국(런던) 도착
2일차 9.13.(목)	11:00	• RMW(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2018 컨퍼런스
3일차 9.14.(금)	10:00	• 런던 폐기물·재활용 위원회(The London Waste and Recycling Board) 방문
4일차 9.15.(토)	17:30	• 영국(런던) → 독일(프랑크푸르트)
5일차 9.16.(일)	-	• 자료 수집·면담 결과 정리
6일차 9.17.(월)	오전 14:00 오후	• 독일(프랑크푸르트) → 독일(프라이부르크) • 프라이부르크 시청 환경부서 방문 • 독일(프라이부르크) → 독일(프랑크푸르트)
7일차 9.18.(화)	19:40	• 독일(프랑크푸르트) 출발(KE 906편) → 한국(인천) 도착(+1일)

### 3. 주요 성과

- 영국 및 독일의 자원순환 법제·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한 자원순환 법제 발전 방향 및 시사점 도출
- 영국 및 독일의 자원순환·순환경제 분야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법제 교류 확대

## 1.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2018. 9. 13. / National Exhibition Centre, 버밍엄
- 방문 주제
  - RMW(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2018 컨퍼런스 참관

## 2. 행사 개요

- 196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분야 박람회로, 19개국에서 약 1만 7천여명 참가
  - 9. 12. ~ 9. 13. 이틀간 순환경제, 재활용, 폐기물 처리, 기술혁신, 지속가능성장 등의 분과로 나뉘 총 350여개의 세미나를 개최
  - 약 500여개의 전시부스를 구성하여 재활용,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관련 기술의 소개 및 시연

## 3. 주요 내용

### (1) EU의 순환경제 전략 주제 세미나 참관

- 발표자 : Stuart Barbrook 외 3인 / 영국 환경청 소속
- 주요 내용
  - EU는 2015년 12월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에 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순환경제로의 이행촉진을 가속화 중
    - 직선적인 경제체제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
    - 소비하고 이를 다시 재활용하는 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목적

-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매립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재활용, 재사용, 폐기물 감축 순서로 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기물 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노력을 촉구함.
- 순환경제 패키지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제품 생산단계, 제품 소비단계, 발생된 폐기물 처리, 재활용 촉진 4단계로 구성된 행동계획(action plan)과 4개의 폐기물 규정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주요 목표는 다음 표와 같음.

2025년까지	1. 도시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률 최소 55% 달성 2. 음식물류 폐기물 30% 감축
2030년까지	포장재 폐기물 최소 70% 재활용
2030년 부터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매립 금지
2035년 까지	도시 폐기물의 매립률을 25% 이하로 감축 도시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률 최소 65% 달성

○ 첫 번째로, 제품 생산단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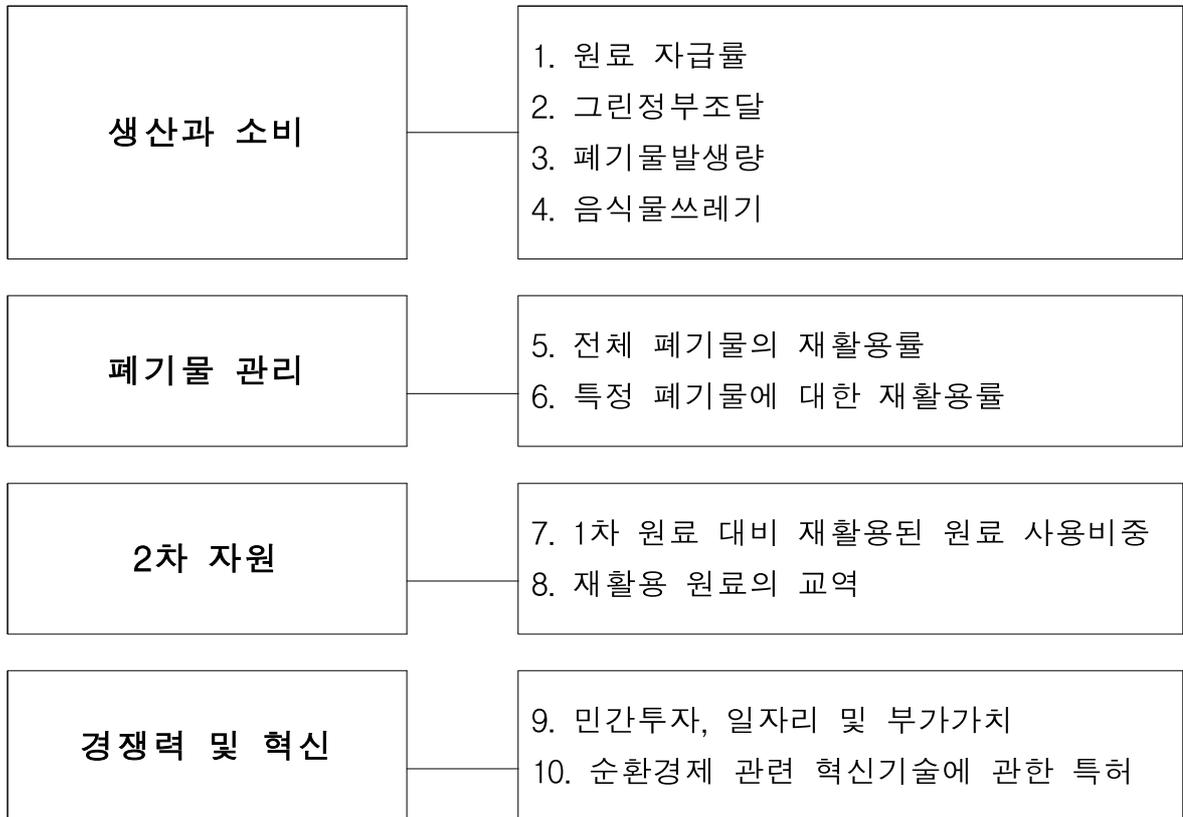
- 전기·전자제품 등을 위주로 재활용, 수리, 재사용 확대를 위하여 제품 구상단계 및 디자인 단계부터 수리의 용이도, 내구성, 재활용성 등을 높이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개발 추진
- 제품 생산단계부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회원국들의 생산 시설 설치허가 시 자원사용의 효율성과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내용을 공정별 최적가용기술 지침서에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함.

- 두 번째로, 제품 소비단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품이 폐기물로 배출되기 전에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디자인 지침 개정 시 제품별 교체부품, 수리정보 제공 등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EU 회원국 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을 통해 대규모로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에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리 가능성을 중시하는 녹색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세 번째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30년까지 도시폐기물 재활용 65%, 포장폐기물 재활용 75%, 그 밖의 모든 폐기물의 매립률\*을 최대 1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EU 차원의 폐기물 처리 정책목표로 삼음.

\* 매립률 : 목재 30%, 알루미늄 60%, 유리 75%, 종이 85%, 플라스틱 55%

  - EU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통계생성을 위하여 정의, 계산기법 등의 단순화 및 중소기업 부담경감을 위한 보고 단순화, 매립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의 도입을 유도
  - 회원국 내 매립·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과잉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수로 조절을 유도
  
- 네 번째로, 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가 순환경제의 중요한 부문임을 강조하고,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소각·매립처분하고, 재사용 가능 자원들은 신제품 생산 시 2차 자원으로서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EU 공통의 품질에 관한 기준 마련을 추진

- EU 회원국 간 2차 자원 이동 시 전자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국경이동 보고 단순화 등을 통한 재활용을 촉진
  - 회원국들마다 재활용 기준이 다른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퇴비를 활용한 유기성비료의 사용 증대를 위하여 EU 차원의 규정 정비를 추진
  - 폐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EU 차원의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
- 이와 함께, EU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순환경제로의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음.



- 2018년 5월 30일, EU는 순환경제 패키지를 최종적으로 승인 하였으며 해당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① 배터리 및 전기·전자 폐기물, ② 폐기물 매립 ③ 일반 폐기물, ④ 포장 폐기물에 관한 4개의 법령(지침)을 개정하였음.



## 4. 방문 사진



## 1. 방문 개요

- 일시 : 9. 14.(금) 오전 10:00 ~ 12:00
- 장소 : 런던 폐기물 · 재활용 위원회(The London Waste and Recycling Board) 회의실
- 참석자
  - 출장단, Andrea Crump 순환경제 파트 Officer
- 방문 주제
  - 런던 폐기물 · 재활용 위원회 '순환경제 루트맵'의 내용과 취지
  - 영국 및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법제와 관련 정책

## 2. 기관 개요

- 런던의 폐기물 · 재활용 관리를 위하여 2007년 런던시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법에 따라 설립된 런던시 소속 위원회로서, 시장이 위원장직을 수행, 정기 · 수시로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위원회 개최
- ① Circular London, ② Resource London 및 ③ Advance London의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Circular London :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런던 및 영국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 Resource London : WRAP(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통하여 런던 폐기물 당국에 대한 폐기물 처리 지원 프로그램 진행
  - Advance London :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자금 운영 및 사업 지원

### 3. 주요 내용

#### (1) 영국의 자원순환 관련 법제

- 1990년 제정된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이 환경법제의 기본법으로서 폐기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 정의 : 폐기물 보유자가 버리거나 버릴 의도가 있거나 버릴 것이 요구되는 것 중 Schedule 2B에 규정된 범주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대상
- 「환경보호법」이 환경분야에 관한 통합적 법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자원순환’만을 다룬 별도의 법률은 없음.
- 다만, EU 지침을 바탕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 유해폐기물 관리 규정, 포장재 관련 규정 등의 개별 규정을 통하여 폐기물 및 재활용 등 자원순환 분야를 규율하고 있음.

#### (2) 영국 정부의 플라스틱 제로 계획

- 영국은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위한 25개년 계획을 발표('18. 1.), 2043년을 목표로 25년 내에 없앨 수 있는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대형마트에서 시행되던 비닐봉지의 유료화 제도를 동네 슈퍼마켓 등 모든 소매점으로 확대
- 일회용 커피컵 등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유료화 검토
- 음식물 포장 등 상품 포장에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 자제
-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 플라스틱 혁신 연구 자금 지원
- 개발도상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문제 지원

### (3) 런던 폐기물·재활용 위원회의 순환경제 로드맵

- 런던 폐기물·재활용 위원회는 2017년 6월 '런던의 순환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런던의 성장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해결책이 필요한 바, 런던 폐기물·재활용 위원회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36년까지 매년 최소 70억 파운드의 순이익 및 2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런던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음.
  - 이에 따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런던의 순환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로드맵에 따른 조치의 이행으로 70억 파운드의 기대이익 중 28억 파운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런던의 순환경제 로드맵은 건축환경, 음식, 섬유(의류), 전자·전기제품 및 플라스틱의 다섯 분야로 나누어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조치를 다루고 있음.
- 그 중 플라스틱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플라스틱이 시장에서 가장 큰 잠재력과 가치에 쓰이도록 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순이익 추정치는 2036년까지 연간 200만 파운드로 위원회는 예상함.
  - 영국 전체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70만톤으로 추정되며, 특히 포장은 폐기물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약 220만톤(59%), 포장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150만톤으로 추정됨.
  - 플라스틱 포장의 32%는 수집 시스템을 벗어나 바다 등 주요 생태계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도시 기반 시설을 막음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
  - 엘렌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최초 사용 주기가 지난 후, 플라스틱 포장재 가치의 95%가 경제적으로 손실(연간 64~950억 파운드 추정).

- 런던의 순환경제 루트맵 중 플라스틱 분야에 대한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런던 자치구들이 국제 표준(예: 글로벌 플라스틱 프로토콜)에 따라 런던 전체의 플라스틱 수집 시스템에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
  - 런던 자치구가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에 일관성을 유지하여 모든 거주자가 플라스틱 병, 항아리, 육조 및 트레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플라스틱 필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어떤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런던 거주자들에게 전달, 홍보
  - 공공장소에서 이용 가능한 플라스틱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
  - 소비자, 민간 및 공공기관이 쉽게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재활용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권장·지원
  - 뉴 플라스틱 이코노미와 협력하여 전세계 플라스틱 공급망 내에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협력적인 방법을 개발

#### (4) EU의 플라스틱 재활용 전략 발표

- EU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전략을 통해 EU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려는 비전 제시('18. 1)
  - 플라스틱 분리 및 재활용 관련 분야에서 2030년까지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임.
- EU 플라스틱 전략의 주요 내용은 ①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제고, ②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③ 투자 및 혁신 유도, ④ 글로벌 협력 및 지원 총 4가지로,
  - 이 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대해서는 2018년 5월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을 발표하였음.

○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제고

- 플라스틱 제품에 에코-디자인 도입, EU 표준협회와 공동으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 플라스틱에 관한 기준 개발 등을 통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 제고를 목표로 함.

○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한 지침안은 시장출시 금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라벨표시, 분리수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1) (시장출시 금지) 2022년 이후 플라스틱 면봉,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접시, 빨대 등의 식기류, 풍선막대 등의 사용을 금지
-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확대) 식품용기, 음료용기, 포장지, 담배필터, 비닐봉투 등의 생산자는 쓰레기 폐기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생산자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친환경 물질을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 3) (라벨표시) 위생용품과 풍선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 여부, 제품의 적절한 처리방법,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라벨로 표시하도록 함.
- 4) (분리수거)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통해 EU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EU 역내에서 발생한 일회용 플라스틱의 90%를 수거하도록 함.
- 5) (인식제고 조치) 폐플라스틱의 처리와 관련한 모범사례를 홍보하고 부적절한 폐플라스틱 처리가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

○ 그 밖에 선박-항만 간 폐기물 운송의 개선, 해양 폐기물 투기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EU 차원의 단일기준 마련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노력 등

#### 4. 방문 사진



## 1.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9. 17.(월) 14:00 ~ 16:00 / 프라이부르크 시청
- 참석자 : 출장단, 한스 슈월츠 Manager
- 방문 주제
  - 독일 연방정부 및 프라이부르크시의 자원순환 법제와 관련 정책

## 2. 기관 개요

- 프라이부르크시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알려진 친환경도시로,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뵐에서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을 계기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환경도시로 발돋움
  - 폐기물발생량이 독일 연방정부 평균 폐기물발생량의 70% 수준이며, 총 폐기물발생량의 70% 이상을 재활용
  - 1996년에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까지 절감하기로 발표, 현재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절감을 목표
- 1986년 시 의회가 원자력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하여 태양열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데 합의하고, 같은 해에 독일 최초로 시청에 환경전담 부서인 환경보호국을 설립
  - 2011년에는 지속가능한 관리 부서(Sustainability Management Unit)가 신설되어 도시의 '그린 프로파일(green profile)'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 관련 정책을 주도 중

### 3. 주요 논의 내용

#### □ 독일 연방정부의 자원순환 목표

- 자원순환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아젠다로서, 혁신적인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자원효율성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자원순환의 주요 목표로 함.

#### □ 독일 연방정부의 자원순환 관련 법제

- 1972년, 「폐기물 처리법(Waste Disposal Act)」이 처음으로 제정
- 1986년,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법(Waste Avoidance, Recovery and Disposal Act)」 제정
  -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단순 처리에서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료와 자원의 효과적 보존 및 제품생산에 따른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여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취지
- 1994년, 폐기물 처리의 체계를 ‘저감-재활용-최종처리(Avoidance-Recovery-Disposal)’의 3단계로 설정하는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 관리법(Closed Substance Cycle and Waste Management Act)」이 제정
- 2012년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 관리법(Closed Substance Cycle and Waste Management Act)」 개정
  - 폐기물 처리 체계를 ‘폐기물 예방-재사용 준비-재활용-회수(에너지 회수 포함)-최종처리(Waste Prevention-Preparation for Reuse-Recycling-Recovery-Waste Disposal)’의 5단계로 다시 설정
- 현재,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 관리법」과 함께 2013년에 발표된 폐기물예방 프로그램과 2012년·2016년에 발표된 연방정부의 자원 효율화 프로그램(ProgRess)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법제를 운영 중

- 폐기물예방 프로그램 : 폐기물의 양 감소, 폐기물의 악영향 감소, 제품과 폐기물 내 유해물질의 감소를 목표로 폐기물 발생 방지
- 자원효율성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 보장, 자원효율성 향상, 자원효율적인 생산·소비, 자원효율적인 순환경제 발전 등의 내용으로 제1차('12) 및 제2차('16) 자원효율성 프로그램 발표

## □ 프라이부르크시의 자원순환 정책

- 프라이부르크 시의 폐기물 발생량은 연방정부의 평균치인 122kg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90kg 기록
  -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종합폐기물관리 계획의 시행과 함께 시민교육을 진행하여 시민들의 폐기물 관련 환경 의식을 제고를 위하여 노력
  - 시에서 일부를 출자한 재활용 처리회사인 프라이부르크 쓰레기 관리 및 도시정화(Abfallwirtschaft und Stadtreinigung Freiburg GmbH, ASF)는 학교와 기관 등과 연계하여 교육, 가이드 투어 등을 진행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중
- 프라이부르크시의 폐기물 관리 전략은 “처리보다는 분리, 분리보다는 방지”로, 일회성 소비사회로부터 벗어나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폐기물 발생 방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시청 역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모범 모델이 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도 1991년 도입된 재활용 이니셔티브에 동참해 노력 중
  - 시민들은 쓰레기통의 크기·수거 주기를 선택할 수 있고, 공동 쓰레기 처리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하며 친환경폐기물의 퇴비화 및 천기저귀 이용자들에게는 금전적 보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

## 4. 방문 사진





- 「폐기물관리법」(86)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방법 등이 마련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03)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재활용 촉진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 이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07)에 이어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
-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체계 정비 및 관련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간 관계 정립 필요
- 2017년도 개정을 통하여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간 중복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으나, 기본법으로서의 「자원순환기본법」 기능은 모호
  - 재활용 분야 역시 재활용 영업 및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폐기물관리법」 재활용 부분 이관 정부법안 既 국회제출, '17. 12.)
-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및 유럽, 미국 등의 국가와의 환경기준에 관한 통상문제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바,
- 환경기준 관련 규제 및 지원제도 등 관련 법제의 개선, 정비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

**참고****출장 결과 관련 참고자료 첨부**

- London's Circular Economy Route Map(런던 폐기물·재활용위원회 발간)
-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EU 집행위원회 발간)
- Green City, Freiburg(프라이부르크 시청 발간)